



## 노영민 “靑 다주택 참모들, 이달 중 1주택 제외 처분하라”

“국민 눈높이 맞아야 하고 이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노영민, 반포 아파트 결국 처분키로…급매물로 내놨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들에게 법적 처분이 불가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강력한 권고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노 실장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진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다.

그러나 이같은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다주택 보유자는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한 숫자”라며 현재까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진들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6개월 전에 권고가 있었던 때보다는 다주택 보유자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참모들을 일일이 면담해 매각을 권고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 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와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 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 실장도 반포 소재의 아파트를 결국 처분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노 실장의 아파트 2채 보유와 관련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청주에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 내부 권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급매물로 이번에 내놨다”고 전했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의명화 과정을 거치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다.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완치자 40명이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이로써 혈장 공여 참여 인원은 총 269명이 됐다.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와 면역글로불린을 농축, 제제화해 사용하는 것이기에 많은 혈액이 필요하다.

혈장 공여 대상자는 제공 동의가 가능한 만 18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완치했거나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 경과한 사람이다.

코로나19 검사, 타 감염성질환 검사, 중화항체가 측정 등 1차 검사 후 중화 항체가 확인된 건에 대해 7일 내 재방문해 혈장성분헌혈(약 500㎖)을 실시하게 된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혈액원, 강릉 아산병원혈액원, 인하대학교병원혈액원,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혈액원, 고려대 안산병원혈액원 등 5개 의료기관에서는 회복기 혈장 수혈이 18명의 환자에게 이뤄졌다.

조희천 기자 hechun1211@naver.com

## 홍콩 경찰, 영장 없이 외국인 도청·압수수색 가능

홍콩 여행을 조심해야 할 듯 하다. 중국어를 몰라 ‘홍콩 독립’이 쓰인 깃발이라도 들었다 치면 철장행이 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경찰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부여한다. 수색영장 발부 없이 도청 감시 미행이 가능하며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외국인도 처벌 대상이다.

홍콩 경찰 내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 안전처’가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조사 체포 심문하는 등 관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도청 감시 미행도 가능하다. 특히 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없이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피의자가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



지난 1일 보안법 반대 시위를 진압하던 한 홍콩 경찰(왼쪽)이 취재기자들(오른쪽)을 향해 최루액을 뿌리고 있다. 홍콩 경찰은 ‘홍콩독립’ 깃발을 소지한 한 시위 참가자가 첫 보안법 위배 사범으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언론사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서방 국가 등 많은 나라가 국가안보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의 도청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다”며 홍콩보안법을 옹호했다.

홍콩보안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홍콩인이나 홍콩 단체가 홍콩 밖에서 저지른 범위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속인주의가 적용된다.

또 외국인이 홍콩은 물론 홍콩 밖에서 저지르는 범위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위태롭다.

차천영 기자 lovesg427@hanmail.net

유리창 박살 차사고 난뒤 노상 방뇨…괴상한 남여 추적중

식당 전면을 들이받아 유리창을 박살 낸 외제차 탑승자들이 노상방뇨까지 하고 도망친 사건이 벌어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께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의 돈까스 판매 음식점을 들이받고 달아난 뱃소니범을 추적하고 있다.

피해 사장 A(32)씨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BMW로 추정되는 외제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성은 사고 뒤 밖으로 나와 옆 가게에 노상방뇨를 하기도 했다. 이 차량에는 남성 1명, 여성 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이후 대리기사로 보이는 사람을 불러 유유히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가게는 통유리창 교체비 350만원을 들이고 약 5일간 장사를 하지 못하는 등 1000만원 정도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2일, 렘데시비르 첫 투약 대상은 중증-위중환자 33명…주치의가 판단

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2명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처음 투약된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분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명의 환자에 대한 렘데시비르 사용 신청이 들어와 심의를 거쳐 오늘 오후 3시경 약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앞서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상태가 위중 또는 중증인 환자에 대해 렘데시비르를 우선 투약하기로 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중증환자 수는 34명이다.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ECMO)나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을 만큼 위중한 환자는 18명, 산소마스크 치료를 하는 중증환자는 16명이다.

코로나19 치료비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며 렘데시비르 비용 역시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방역당국은 또 임상 근거에 기반을 둔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5500여 명의 임상 역학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8개 기관에서 신청했다. 의료기관 5개, 공공기관 2개, 학교 1개다.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 “최저 임금 인하 해야…같이 살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2일 내년 최저 임금 인하를 요구했다.

협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이르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편의점 업계는 임금 인상 여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같이 살기 위해 최저 임금 인하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노동계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 임금 인상을 수년간 밀어붙였으나 그 피해는 오히려 최저 임금 근로자가 입었고, 수혜는 안정된 직군의 근로자가 받았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를 차지하고서라도 최저 임금 인상은 15시간 미만 초단시 간 근로자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노동계가 목표한 취약 계층 고용 안정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또 “정부의 추경 예산을 통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은 일시적 안정 일 뿐이며, 최저 임금 인상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대량 폐업, 대규모 해고 사태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주목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양산이 바로 코앞에 있다. 올해조차 부결된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업인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농지은행은 농지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www.fbo.or.kr](http://www.fbo.or.kr))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b>맞춤형 농지지원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매매·임대차 공포임대용 농지 매입</li> <li>•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임대</li> </ul>	<b>농지연금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li> </ul>	<b>농지임대수탁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li> </ul>
<b>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최대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li> </ul>		

농지은행 | 농지연금 홈페이지 [www.fbo.or.kr](http://www.fbo.or.kr)

# 교회협·한교총 “소모임 자제…여름 성경학교 축소·취소해 달라”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이 여름철 성경학교와 캠프 등 행사 취소 또는 축소·연기를 골자로 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함께 막아내자”고 했다. 특히 전국 교회가 7월 여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욱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몇몇 교회에서 확산 상황이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교회에 집중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모든 교회는 주일 예배에서보다 예배 이외의 소그룹 모임에서 감염확산 사례가 나오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세밀하게 방역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과 한기협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의 다섯 가지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다섯 가지 협력 방안은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른 출입자 기록, 체온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 교회발 코로나19 확산에 교회의 5가지 협력방안 발표

### “예배보다 소모임 확산…세밀하게 방역활동 펼쳐야”

크,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와 실내 방역, 환기와 더 유의할 것 △ 교회 안팎에서 진행하는 소그룹 모임과 교제 모임은 자제할 것 △여름철 진

행되는 성경학교와 캠프, 기도원 부흥 회와 M.T, 수련회와 미션 트립 등 모든 행사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취소 축소 연기를 고려할 것 △여름 행사를 축소

진행하더라도 방역을 철저하게 하며, 숙박과 음식물 제공을 피할 것 △코로나19의 치유와 극복을 위해 기도할 것 등이다.

윤보환 한기협 회장은 “이번 협력방안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활절 행사를 연기했던 노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회가 정부에서 선정한 고위험 단체인 뉴앙스가 많이 퍼져서 지금까지 방역을 철저히 했다”며 “6만 단체 중 이렇게 확진율이 낮은 건 교회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한교총 대표회장은 “무증상 감염자가 방문한 교회에서 확산하는 것을 막는 책임도 우리 교회에 있다”며 “확진자가 예배에 참여했어도 확산하지 않았던 여러 교회들처럼 모든 교회는 더욱 방역과 예방 지침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기협 윤보환 회장과 한교총 김태영, 문수숙, 류정호 대표회장이 참석했다.

이신호 기자 aaa2779@naver.com

## 대전 교내 감염에 방역당국 촉각

###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예정



대전 동구 천동초등학교 학생들이 2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 지난달 30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내 감염 의심 사례가 발견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교내 감염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 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교내 감염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단 (교내 감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NGS(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타입 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 일 밤 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대전 115번 확진자의 동급생 2명(120 번·121번)이 무증상 상태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5번 확진자는 어린이집 원장인 어머니 11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120번 확진자는 115번 확진자와 같은 반이고, 121번은 115번과 같은 학년이지만 다른 반이다.

방역당국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확진자의 바이러스가 동일한 균주인지를 확인해 교내 감염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천동초 5학년 학생들과 교직원, 확진자의 학원 접촉자 등 306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천동초 5학년 외 다른 학년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권 부본부장은 “전파가 다른 연결고리를 타고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학교 종사자, 학생들의 겹사도 진행 중이고 잠복기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종환 기자 gj6300@hanmail.net

##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사장 퇴진 운동…“사태 책임져라”

### “노사간 합의사항이라는 공사 주장은 명백한 ‘허위’”



인천국제공항사 노조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고용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공사) 정규직 노조가 구분한 공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공사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직접고용하기로 발표한데 따른 것

으로, 정규직 노조는 이들을 공사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일 공사 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공

항에서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 1902 명을 특수 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공사가 직접고용하기로 한 방침은 노·사 합의 사항이라는 공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구 사장 퇴진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규직 노조는 올해 2월 28일 체결한 제3기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회 합의문에서도 공사와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대표는 보안검색인력에 대해 “직접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했다.

특수경비원 신분인 보안검색요원들을 공사가 직고용할 경우 경비업법과 항공보안법 등 관계법을 고쳐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는게 노조 측 주장이

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공사는 자회사 편제가 직고용 전 ‘임시편제’라는 일방적 해석을 담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와 관련해 구 사장은 노·사·전 회의록 중 공사 측 일방 진술을 합의된 사항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입장문을 지난달 30일 사내 게시판에 게시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보안검색의 정규직 전환 협의는 줄곧 ‘특수경비원 지위 유지’를 전제로 이뤄져왔다”며 “이는 국가보안시설인 인천공항의 방호체계를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원경찰은 1998년 정부의 ‘국가 중요 시설 경비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전문성 저하와 운영 비효율을 이유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고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구 사장의 퇴진운동도 본격적으로 전개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경찰연합신문

미래포커스

[www.koreapolicenews.com](http://www.koreapolicenews.com)

회장 송원기

발행·편집인 추교진

인쇄인 현재오

대표전화 : 1899-2026

팩스 : 02-558-2289

E-mail : mbc0300@gmail.com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42, 3층(대치동, 덕유빌딩)

2020년 5월 13일 창간 / 등록번호 : 가50142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2026 / 구독료 : 월 15,000원 -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여행, 어디로 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 으로  
오세요!

**순창이 참 좋다**

Season Your Life with Sunchang

# 다시 열린 ‘유럽 하늘길’…재개 첫날 출국 승객은 540명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제한 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유럽행 비행기 출발 정보가 나타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막혔던 유럽의 하늘길이 지난 1일 다시 열렸지만 이날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이같은 조치에 유럽여행이 사실상 가능해졌지만 국내에 돌아오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

EU, 한국과 일본등 14개국 입국 허용

이날 인천공항 이용객수는 6217명

여행 끝나면 국내서 자가격리 해야

기 때문에 당분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내 승객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EU 평균보다 적은 14개 국가의 입국을 허용했다.

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6217명(도착 3080명·출발 3137명)이었다. 이는 지난달 하루평균 6078명(출발 2444명·도착 363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인천공항과 유럽을 운항한 항공기는 27편(도착 12편·출발 15편), 이용객수는 739명(도착 199명·출발 540

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이용객수가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435명(도착 985명·출발 1450명)이었고, 이어 동남아 1626명(도착 1140명·출발 486명) 순으로 조사됐다.

EU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적은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알제리, 조지아, 몬테네그로, 모로코, 르완다, 세르비아, 타이, 트리니지, 우루과이 등 14개국 국민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자 gj6300@hanmail.net

민주노총, 서울시 ‘여의도 집회 금지’에 “유감”

“집회규모 축소 용의 전해…오늘 중앙집행위서 판단”

민주노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에서 집회 금지 통보를 공문을 통해서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서울시와 구두, 유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했다”며 “지난달 30일에는 공문을 통해서 철저한 방역지침 하달, 기저질환과 발열증상 인원 참여 불가 등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집회 규모 또한 축소할 용의가 있다는 것도 말했다”며 “오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회 진행 여부 등에 대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시민들의 우려도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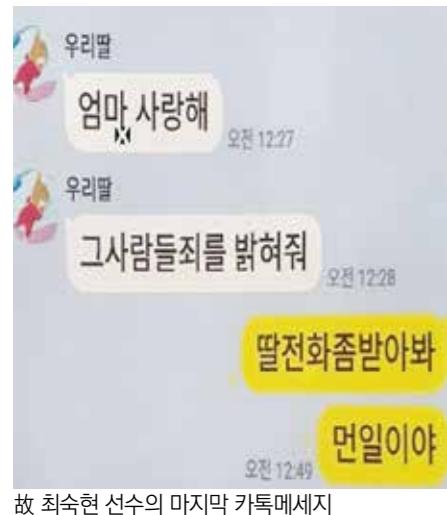
시는 그동안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 집회 자체를 촉구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집회취소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지난 1일 집회강행 의사를 밝힌 만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재 기자 tosji@naver.com

광/고/문/의

1588-1058

## 문 대통령 “故최숙현 사건, 선수출신 문체차관 나서서 쟁겨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23)가 소속팀 지도자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선수 출신인 최윤희 문화체육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 문제를 쟁기라”고 지시했다. 최 차관은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 선수가 폭력신고를 대한체육회는 전날(1일) 스포츠인권센터가 지난 4월8일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된 폭력 신고를 접수,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을 감안, 여성 조사관을 배정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구지검으로 이첩돼 조사중이며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경복 기자 axoway1212@naver.com

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향후 스포츠 인권 관련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오전 부산시 청직장운동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최 선수의 유족은 최 선수가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폭행 과정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감독은 최 선수를 폭행하던 팀 닥터에게 “선생님 한잔 하고 하시죠. 콩비지찌개 끓었습니다”라고 하는 등 폭행 과정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는 전날(1일) 스포츠인권센터가 지난 4월8일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된 폭력 신고를 접수,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을 감안, 여성 조사관을 배정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구지검으로 이첩돼 조사중이며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경복 기자 axoway1212@naver.com

## 기상청, 여름예보 강화… 이달부터 ‘10분단위’ 강수량 예보

### 막대그래프 형태로 강수량 예보도 제공

기상청은 이달부터 10분 단위 강수량 정보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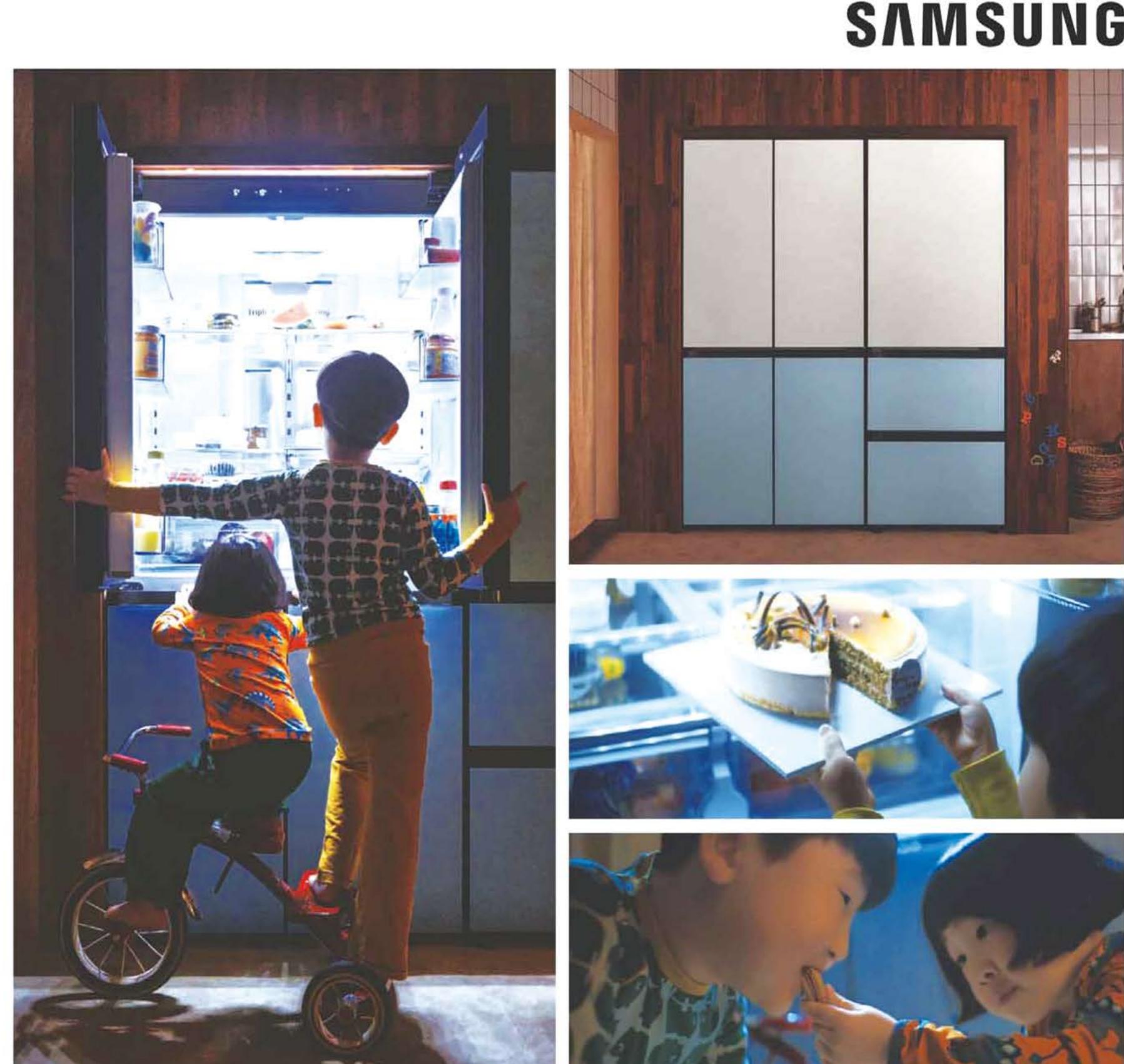
이 정보를 이용하면 강수의 시작과 종료 시점, 강수가 강해지고 약해지는 변화를 10분 단위로 알 수 있다.

그동안 기상청은 현재 내리고 있는 비에 대해 6시간까지 1시간마다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를 12시간까지 10분 단위로 대폭 단축한 것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지금 내리는 비는 오후 5시께 그칩니다’라고 알렸다면 이제는 ‘지금 내리는 비는 오후 3시 20분에 그칩니다’라고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10분 단위 강수량 정보는 기상청 날씨 누리나 모바일 웹, 날씨알리미 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님 기자 ekska777@naver.com



우리는 미식가 형제

우리는 밤마다 맛의 모험을 떠난다

우리에게 넓은 보물창고가 되어주는 비스포크가 있다

**모두에겐  
자신만의  
비스포크가 있다**

16개의 컬러 x 11개의 타입 = 원하는 라이프에 모두 맞춤  
당신만의 비스포크는 무엇인가요?

BESPOKE



## 이춘재, 34년간 23번 범행 14명 살해 '욕구불만 사이코패스'

경찰 1년간 재수사 결과 발표, 최악미제사건 진범 밝혀져

34년간 23건 범행 14명 살해, 자백한 추가 범행 34건 중 14건만 확인

34년만에 밝혀진 최악의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의 진범 이춘재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결과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춘재가 지난 1980~1990년대까지 모두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9명의 여성은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벌이는 등 23건의 범죄를 확인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은 2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최종 결론내렸다.

### 이춘재 34년간 23건 범행 14명 살해

경찰 조사 결과 이춘재는 그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 10건 모두의 진범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 발생했다.

이 가운데 1988년 9월 16일 화성 태안읍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8차 사건의 경우 이듬해 윤모(53)씨가 범인으로 검거됐지만, 이춘재의 자백으로 32년만에 진범이 밝혀지게 됐다. 당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과거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있다.

시 억울하게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현재 재심을 청구해 수원지법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특히 1989년 7월 7일 화성 태안읍에 살던 김모(당시 8세)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그동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분류되거나 않았지만, 이번 수사에서 이춘재는 이번 수사에서 이춘재

가 김양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8차 사건 관련해 수사 참여 경찰관 및 검사 등 8명을 직권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초등생 김모양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참여 경찰관 2명을 사체온니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춘재는 살인 말고도 34건의 성폭행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지만, 경찰이 살인사건 피해자들 유류품에서 나온 이춘재의 DNA 등 증거를 토대로 재수사한 결과 14건만 이춘재의 소행으로 확인했다.

이춘재, 사이코패스 성향 '욕구불만 이 가학적 범죄로'

경찰은 이춘재가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삶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군 전역 후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불만의 상태에서,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춘재는 특히 성범죄와 살인을 지속적으로 저질렀음에도 죄책감 등의 감정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감정상태에 따라 살해하면서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게 됐고, 점차 범행수법도 잔혹해졌으며 가학적인 형태로 진화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춘재는 초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건강 및 교도소 생활만을 걱정하는 등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과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언론과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춘재의 범행동기는 "욕구 해소와 내재된 욕구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차재만 기자 jm8561@hanmail.net

## 서울 도심 쓰레기서 다이너마이트 발견 산업용 다이너마이트, 1970년대 공포탄 살상 능력은 없어…투기 등 가능성 조사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건물 인근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공포탄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신고를 받아 군과 함께 출동해 한남동 한 건물 뒤 쓰레기 악적 장소에서 다이너마이트 6개와 공포탄 2종 43발을 확보했다.

다이너마이트는 산업용으로 발견 당시 부식이 심해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

였다고 한다. 공포탄은 1970년대 군·경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살상 능력이 없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종기용이었다고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통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물품은 감식 이후 군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 검찰, '위안부 망언' 류석춘 소환

### 연세대 2~3주 내 징계위 재소집, 징계 처분 재논의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 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발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류 교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그는 전날 "오늘(1일)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고발 사건 때문에 (서울)서부지검에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를 매춘과 동일시 하는 발언을 했다.

또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말을 하며 성희롱 논란까지 빚어졌다.

이에 정의연은 지난해 10월1일 서울서부지검에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4월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또 연세대는 이날 "류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3주 내로 재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는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류 교수의 징계 효력정지 거쳐분신청을 받아들이며 징계위를 다시 열게 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검은 "정직 처분 무효확인 본안사건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해 징계사유는 있으나 류 교수가 기피신청을 한 징계위원이 징계위에 참여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기피신청 절차 등을 감안해 적법하게 징계위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이용수(92) 할머니 등 일복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류 교수는 최근 일본 우의 잡지에 '위안부로 간 건 취업 사기 당한 것' 등 일본 우의 세력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의 기고를 했다"며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역사관을 뒤흔들고 강제징용·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마음을 더할 수 없이 아프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인단은 다음주 초에 이들을 사자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 경찰, 서울시교육청 '공공 마스크' 업체선정 의혹 내사

### 공모 사흘만에 신청 마감…수의계약 업체, 외국산 마스크 공급

서울시교육청이 60억원을 들여 학생들에게 무상지급한 공공 마스크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아직 첨보 단계"라며 "내사 초기라 사건 내막을 파

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사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의 유치원생과 초·중·

고등학생 등에게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마스크 납품업체 선정 공고를 금요일인 3월 20일에 하고 월요일인 3월 23일 신청을 마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의계약으로 업체

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계약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 편을 임의로 선택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업체는 외국에서 면 마스크를 수입해 240만장을 서울시교육청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마스크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신 기자 ieeysin7789@hanmail.net

'품격' 있는 선물..

영광굴비

# 민주, 윤석열 총공세...“조직위해 결단하라” 거센 압박

## “검언유착 몸통”,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 거친 비난도



최강우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진애 원내대표, 강민정 의원 등과 함께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언유착 사건 관련 경찰 총장의 권한남용과 수사방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건달 두목’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총공세를 펼쳤다.

추 장관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발언한 뒤 압박의 수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총장이) 즉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특임검사 임명 건의 수용을 압박했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국회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거부할수록 국민의 개혁요구는 높아진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의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윤 총장이 스스로 무리수를 두면서 검언유착의 몸통이 윤 총장 아니라는 의혹이 나올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줄곧 이야기했던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을 왜 스스로 깨뜨리는지 모르겠다”며 “선택적 수사를 하지 말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을 겨냥, “그 정도 실력으로 대통령 손에 피를 물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니”라며 “국민은 윤석열이 얼마나 망가져서 퇴장할지를 구경하는 일만 남았다”고 비꼬았다.

열린민주당도 가세했다.

최강우 대표는 “상황은 이미 악계집을 넘어서 것으로 보인다. 바른길을 가려는 검사들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특한 언론플레이로 조직을 망가뜨리는 자들을 응징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 장관을 응원했다.

황희석 최고위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던 윤 총장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말한 것을 거론, “옳은 말이다. 깡패도 아니고 조폭 두목이라는 말이 그래서 회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로 부상한 데 대한 견제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수구 세력의 대권 주자가 되고픈 마음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봤자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이란 평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안철수, 민주당에 “공수처법 개정? 꿈도 꾸지 말라”

“文, 민심 빙자해 입법부 심부름센터 전락시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청와대와 여당의 무소불위의 독주는 곧 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각자의 전문성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각종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며 “그래놓고 여당은 35조원이 넘는 추경안 심사를 강행하고, 출속으로 3조원 넘게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추경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 하명에 국회와 야당의 존재는 부정됐고 국민의 지갑은 영훈까지 털렸다”며 “민의의 정당이자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날림 심사와 날림 통과로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수처법 차례일 것, 벌써 여당 대표 입에서 법 개정 얘기가 나온다”며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을 배제한 선례를 만들고나면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임명 방식에도 손댈 것”이

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을 두고 혹자는 사이다처럼 시원하다 말한다”며 “그러나 당장은 사이다가 시원할지 모르지만 중독되고 의존하면 결국 남는 것은 당뇨병 같은 성인병뿐”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또한 “과거 군부독재의 불의에 맞서 싸웠던 정의는 사라지고 어느덧 닮은 꼴로 그 악행을 답습하고 있다”며 “결국 경제도 파탄나고 나라도 결단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안 대표는 여당을 향해 “3차 추경이 안되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처럼 선동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입법부를 향한 부당한 지시, 인천국제공항 공사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라”며 “국정운영의 책임감과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고 자중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영달 기자 bdd600@naver.com

##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박상학 대표,

## “文대통령은 헌법파괴자, 유엔에 고소할 것”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파괴자”라며 “문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박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재갈을 물려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면담은 주호영 원내대표 측에서 먼저 대북전단 활동에 대한 애로를 듣기 위해 관련 단체에 제안해 이뤄졌다.

박 대표는 “김여정이라는 노동당 2부부장인지 뭔지 하는 시간방진 여자가 공갈 협박을 하더니 대한민국 청와대나 통일부가 북한에 예속됐다”고 말했다.

신선호 기자 sinnews@hanmail.net

## 심상정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

### 문대통령 향해 “고위 관료들 다주택 처분하도록 조치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일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산무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

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대표는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 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의 입장은 밝힌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상대방을 향한 작은 배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객 전원  
소독 실시 안내

\*게이트형 방역소독기 설치 외 구역은 출입통제 및 출입구 폐쇄 조치

게이트형 방역소독기  
(정문, 중문, 남문, 샤워장, 목재교량, 외옹치  
바다향기로 등 총 7개소 설치)

피서객은 입구 게이트형 방역소독 이용 준수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 물 밖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단체여행객 이용자제

·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문의

#

#이기자 코로나  
코로나19  
예방 안전수칙

속초 햄수목장 개장 7.10 ~ 8.31

야간 개장  
7. 25 ~ 8. 16 / 21:00까지

속초시

# 통합당, 추미애 해임건의안 이어 '탄핵소추'까지 거론

주호영 "추, 백주대낮에 윤 총장 팝박...광기 느껴"  
윤 총장 향한 '추-민주-검찰2인자 '3각 협공' 비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협공'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통합당은 전날 추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한 데 이어 이 날은 문재인 대통령에 '결단'을 촉구했다. 추 장관을 탄핵소추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

총장 사이에 벌어지는 모습이 국민을 대단히 실망시켰다"면서 "문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잘 협의하라 지시했지만 오히려 그 말 이후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렇잖아도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이 짜증이 나는 데 대통령이 이 문제라도 빨리 조속한 결말을 내주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 횡포가 참 안하무인"이라면서 "백주대낮에 검찰총장을 팝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에 해임건의안을 낼까 생각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서 "(추 장관 해임) 건의안은 물건너갔고 탄핵소추안을 건의해야 하는게 아닌지 의견이 당에서 많이 나와 해임건

의안으로 할지 탄핵소추안을 빌의할지 결정해서 추 장관 횡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에게서 광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낀다. 즉시 윤총장 탄핵을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밑에서 치받는 행태를 연일 계속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아마 용인하니 법무행정질서도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윤 총장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요구해 '항명'논란을 빚었다. 이어 1일에도 윤 총장에 대한 주례대면보고를 서면 보고로 대체했다. 이를 두고 법무장관과 여당, 검찰 2인자가 윤 총장 고립을 위한 '3각 협공'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추 장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윤 총장을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추 장관이 협박했는데 추 장관의 추한 칼춤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발언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인사청문권한까지 침해한 막말"이라며 "문 대통령 묵인 하에 쫓아내려하면 문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욱 기자 kiosp200@hanmail.net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1위...보수층 흡수한 윤석열 3위

2020년 6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대 초반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월 조사 보다 상승한 15%대 지지율을 받았다. 새롭게 후보군에 포함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10%대 지지율로 단숨에 3위에 올랐다.

**이낙연, 두 달 연속 하락했지만 13개월 연속 1위  
리얼미터 후보 처음 포함된 윤석열, 단숨에 3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

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9%), 원희룡 제주지사(2.7%), 심상정 정의당 대표(2.5%), 박원순 서울시장(2.4%), 유승민 전 의원(2.3%), 김부겸 전 의원(1.7%)이 뒤를 이었다. 새롭게 후보군에 포함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1.7%,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의 지지를 받았다. '기타 인물'은 1.4%, '없음'은 6.2%, '모름·무응답'은 2.6%였다.

한편 벤진보 여권 주자군(이낙연·이재명·심상정·박원순·김경수·김부겸·임종식)의 선호도 합계는 지난 조사보다 1.6%포인트 내린 56.3%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6일 까지 대선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37명을 대상으로 했다(6만1356명에 접촉해 2537명이 응답 완료, 응답률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DIT 신용보증기금**

당신의 특허가 **신용보증기금**을 만나  
**금융자산이 됩니다**



제55회 「발명의 날」 기념식 발명장려유공단체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지식재산 보증지원 프로그램 | 개발자금 보증 | 사업화자금 보증 | 가치평가 보증 | 이전자금 보증  
프로젝트자금 보증 | 우대 보증 | IP-Plus 보증

대표전화 1588-6565

**Exciting 동구**



동구 8경거닐며  
**관광 풋물들다**



**대전광역시 동구**

## ‘종로 소녀상 앞’ 수요시위 못 연다…코로나 집합금지령



정의기억연대와 참석자들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정부 수요시위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수요시위도, 보수단체 집회도 당분간 열릴 수 없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종로구가 해당 지역에 집회제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3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율곡로 2길 ▲율곡로~종로1길(율곡로2길) 만나는

종로구,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제한 명령 연합뉴스 앞도 금지구역…위반시 벌금 300만원

지점~종로소방서) ▲종로5길(케이트 인터워~종로구청)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의 도로와 주변 인도의 집회를 금지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이 장소 내 집회나 시위 등 집행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만일 위반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옛 일본대사관 인근의 평화의 소녀상은 율곡로 2길에 있어 집회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곳에서의 집회 신고를 선점한 보수단체 시위도, 보수단체에 밀려나기 전까지 28년간 이곳에서 열렸던 수요집회도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수단체에 소녀상 앞 자리를 빼긴 정의연이 수요시위를 진행했던 인근의 연합뉴스 사옥 전면 인도도 집회 금지구역에 포함된다.

앞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수요집회를 못하게 하겠다며 지난달 23일부터 다음달까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 열렸던 1445차 수요집회는 1992년 1월 첫 집회 이후 28년만에 처음으로 소녀상 앞이 아닌 연합뉴스 앞에서 열렸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29일 연합뉴스 앞에서의 집회 신고도 선점한 바 있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초등학교 주변 불량식품 업체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 2달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 만들어 팔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2달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를 만들어 팔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분식집을 운영한 양심 불량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5~29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햄버거·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학교·학원가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0곳에 대해 수사해 모두 61곳에서 6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1건 ▲식품 보관 기준·규격 위반(냉동식품 냉장보관 등)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재고관리 관계서류,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7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5건 ▲원산지 표시표시 3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

실 위생상태 불량) 6건 등이다.

파주에 있는 A식품점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를 사용해 핫도그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용인시에 위치한 B식품점객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파스타 재료로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C식품점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곽동근 기자 joongwon1993@hanmail.net

## 안양실내수영장, 현대식으로 재탄생…보강공사 완료



경기 안양실내수영장이 10개월간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내진성능이 강화된 현대식 수영장으로 재탄생했다.

2일 안양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시작된 수영장 보수 공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1989년 10월 준공된 수영장은 당초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난해 실시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내진성능 강화 등 구조물 보강을 통한 구조안전성 확보를 지적 받았다.

이에 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1일부터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기간 동안 철골 가새 보강 등 내진성능 강화와 함께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노후화된 각종 시설물을 교체했다. 모두 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여기에 개인사물함 추가 설치와 함께 샤워실

및 틸의실의 타일을 교체하고 휴게실을 갖추는 등 시설의 현대화를 꾀했다.

배찬주 사장은 “지진 발생 대비 구조물 보강과 함께 노후시설물 모두를 새로 교체하는 등 재난안전하고 예방에 적극 대처 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당장 개장하기 힘들겠지만 개장 후에도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 했다”며 “수영장을 찾는 고객의 만족도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 준법투쟁…배차간격 늘듯

###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사규 위반 등 엄정대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노조)가 3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9호선 2·3단계 부문)은 사규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91%가 찬성(144명 중 120명)해 쟁의권을 획득했다. 노조가 이날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준법투쟁은 출·퇴근 시간(오전 7~9시·오후 4시30분~7시30분) 대에 출입문을 여닫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무리하게 배차 간격을 맞추지 않는 방식이다. 열차 운행 횟수에는 변동이 없다.

공사는 고객안전과 인력을 승강장

에 배치해 혼잡 상황을 관리하고 열차 간격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대체열차를 투입한다. 또 승무원들에게 정시 운행을 최대한 독려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는 사규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9호선 2·3단계 노사는 교섭 개시를 8월말 이후로 연기하기로 협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심각단계 격상(2월23일)에 따른 정부의 확산 방지 대책(대면회의 금지)과 차기 위수탁 사업자가 결정된 이후에야 임단협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신청 이후 노사는 5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사항인 공사와 동일한 취업규칙 적용(1~8호선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직급 및 흐름

제 도입·정원 126명 증원 등)과 민간 위탁 공모 반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19일 지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민간위탁 공모 반대 건의 경우 지난달 17일 제295회 서울시의회(교통위원회)에서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됐으며 30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상태다. 공사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임단협 교섭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측의 처분권 범위 외의 사항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도중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장은 “노조와의 남은 임단협 교섭에 성실히 임하며 원만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면서 “노조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투쟁행위를 중지하고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운조 기자 wj3737@gmail.com

## 고양시, 장례식장 QR코드 전자출입명부 100% 설치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장례식장에 대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고양지역에 일산병원과 일산백병원 등 9곳의 장례식장이 운영 중이다. 집합 제한 시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9곳 중 2곳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이용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시는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나머지 시설 7곳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내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준수 지도점검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해당 시설들에 대해 출입자 관리 대상 작성 및 보관, 방문자 발열 체크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주기적 소독·청소,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장례시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장운조 기자 wj3737@gmail.com



# 경기도 청년정책 한 눈에...‘경기청년포털’ 운영 시작



경기청년포털 메인페이지. (사진=경기도 제공)

## 31개 시·군 청년 정책 모두 종합해 제공

경기도는 청년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경기청년포털’이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경기청년포털은 지난해 5월 경기도 의회 청년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만들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모두 종합해 제공한다. 청년들이 도, 시·군 홈페이지를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경기청년포털에서 필요 한 정보를 모두 찾을 수 있다.

청년의 지역, 연령, 관심분야, 사회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검색기능’도 제공한다. 도는 검색기능

에 대한 보완 작업을 계속해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라는 경기 청년포털의 장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책 제안 게시판과 질의 게 시판을 통해 청년들과의 신속한 소통 을 강화하고, 시·군별 청년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그 지역의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 현재 지역 청년정책위원회를 중심 으로 23개 게시판이 포털에서 운영 중

이다. 도는 정부의 청년정책 정보까지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도내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얻고,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경기청년포털이 정보 제공의 기능을 넘어 청년들이 대화하고, 어울리는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식 운영 시작을 기념해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게시판에 ▲각종 포털·검색 사이트에서 ‘경기청년포털’을 검색한 뒤 내려받은 이미지를 올리거나 ▲이벤트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뒤 주소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35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경기청년포털에 가입한 회원이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존 잡아바(jababa.net) 회원은 별도 가입 없이 로그인해 응모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청년포털 홈페이지 (<https://youth.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옥 기자 kiosp200@hanmail.net



## 구리시,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설치 시범사업

경기 구리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시립어린이집 2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실내 환기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에어 큰 사용으로 밀폐된 실내 비말(침방울)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설치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물질의 실내유입을 차단하고 정체된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방진망은 황사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꽃가루 등 대기오염 물질을 90% 이상 차단하면서도 외부 바람을 통과시켜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지역아동센터 및 시립 어린이집을 대상으

로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7월 중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만족도 설문조사 후 내년도에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

름철 에어컨 사용은 비말을 확산시

킬 위험성이 높아 정부에서도 에어

컨 사용 자체를 권고하고 있으나,

창문을 개방하면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이 유입돼 또 다른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설치해 안

심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이 조성되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임차사업과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컨설팅 사업을 매년 지속

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이들이 실내

에서 안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실

내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

다.

박덕환 기자 sunmoon500@naver.com

## 인천, 영종도~청라 제3연륙교 연말 착공

2025년 하반기 개통목표·6천억 투입  
인천대교, ICC에 손실보전 중재요청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인천국 제공함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 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 렉교 건설사업이 올해 말 공사를 시작 할 전망이다.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대교 측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통행료 손실보전 중재 신청에 대해 지난달 30일 ICC는 추정 통행료 수입과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 전부를 보전해주도록 결정했다.

인천대교 측은 국토교통부와 제3연 렉교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전 요건 및 규모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2018년 4월 ICC에 중재를 신 청했다.

국토부와 인천대교 측은 애초 영종



영종대교. 사진=인천 신공항하이웨이 제공.

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또 다른 다리가 생겨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면 오는 2039년까지 최소 운수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했으나 부담 주체와 규모 등을 명시하지 않아

분쟁의 여지를 남겼다.

인천대교 측은 “추정통행료 수입과 실제 수입의 차액 전부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국토부가 반대하자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시와 경제청은 ICC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제3연륙교 개통 시점(2025년 예정)에 기준 연륙교의 실제 통행량 변화를 측정해 차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손실보전금은 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하게 될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자들에게 징수하는 통행료 수입으로 충당하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손실보전 방식에 대한 ICC의 최종 판정이 내려져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애초 목표로 한 연말 착공에 문제 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연결 하는 제3연륙교는 길이 4.66km, 폭 29 m(왕복 6차로+자전거도로·보도)이며 공사비는 6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공사 기간 을 애초 예상된 66개월에서 54개월로 최대한 단축, 오는 2025년 하반기에는 개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 모친 코로나19 확진된 직원 근무 성남시 중원구청, 9시부터 정상업무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에 근무하는 30대 직원 모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시 폐쇄됐던 구청이 3일 오전 9시부 터 정상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시는 지난 2일 이 직원의 모친(60대·광주36번)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중원구청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실 시하고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일시 폐쇄했다.

중원구청 직원은 광주시 목현동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장문조 기자 wj373@gmail.com

안녕  
자연의 창녕

창녕사랑상품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으로 오세요~

창녕 전통시장 장날~

- 창녕장: 3일, 8일
- 남지장: 2일, 7일
- 대합장: 2일, 7일
- 이방장: 4일, 9일
- 영산장: 5일, 10일

창녕군

나는 전통시장에서 장본데~

창녕 전통시장  
changnyeong traditional market

코로나19로 휴장 중이던 전통시장이 다시 개장했습니다.  
저녁 식탁을 전통시장에서 사온 먹거리들로 채워보는 건 어떠세요?



창녕 전통시장 장날~

- 창녕장: 3일, 8일
- 남지장: 2일, 7일
- 대합장: 2일, 7일
- 이방장: 4일, 9일
- 영산장: 5일, 10일

# 교육부, 대학 원격수업 제한 다 품다…온라인 석사과정 허용

대학자율로 교과 20% 이상 개설·온라인평가 가능

혁신지원사업 자율 집행비 상한 30%서 상향 조정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학에서도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20% 상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방식도 출석평가에서 대학 결정에 따라 원칙으로도 실시할 수 있게 완화한다.

교육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리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에서 이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이번 대화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

장)을 비롯한 4년제 대학 총장과 전문대학 총장 31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주제로 발표한다.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해 대학교육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20%로 제한되던 대학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을 앞으로 대학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수학점 제한도 100% 원격 이수를 하지만 않으면 대학이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는 일반 대학이 온라인으로 석사학위과정도 운영하



교육부가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리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에서 원격수업 관련 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교육부 제공)

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대학 자체 또는 국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방안,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학사·석사학위과정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상한을 기존 3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경

우 각 대학이 1학기 등록금 반환할 때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는 게 교육부 구상이다.

교육부는 2021년 예정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각종 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유학생 중도탈락률 등 지표를 조정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는 원격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대학 설립·운영 시 필수적으로 여겨지던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도 완화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을 두고,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일단 규제 없이 운영 후 문제가 생기면 제한 또는 보완하는 방식을 말한다.

2021년 상반기 중 교육부 홈페이지 규제목록을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커지고 디지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과 신기술 분야 과정 등 재직자·실직자 전환교육 등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강화한다.

또 외국대학이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국내대학 학위를 줄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해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대학 측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포스트 코로나 대학혁신전략-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대학의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대학·전문대학 총장 4명이 참여한다.

김수홍 기자 ypaper@kg21.net

## 어서와~ 경북관광 100선 챌린지투어는 처음이지?

### 참여방법

관광지 방문 ▶ QR코드 스캔 또는 <https://도전경북투어.com> 검색 ▶ 미션 수행 ▶ 기프티콘 받기  
경북관광 100선 미션 클리어할수록 트래블링 확률 Up!

### 즐거움이 배가되는 혜택!

각 관광지 미션 클리어 시  
기프티콘 획득!  
3개소 이상 클리어 시  
특산물 상품권 3만원 획득!(선착순)  
연말 '트래블링'이 되면 레이 캠핑카,  
TV, 안마의자 등 푸짐한 경품 증정!

### 지금 참여하러 가기

<https://도전경북투어.com>



주리주라~  
레이 캠핑카  
주라!

경북관광 100선 대상지가 궁금하다면? [www.letsgogb.com](http://www.letsgogb.com) T. 1644-7401

경상북도

GCTO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유은혜 “등록금 반환, 대학 자구노력 먼저”

대학 총장들 만나 등록금 반환 노력 당부

“등록금 반환은 정부 직접 지원 안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총장들을 만나 1학기 등록금 반환 등에 나서줄 것을 완곡히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다”며 “총장들이 잘 들어주고 함께 협의하면서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등록금 반환은 정부 직접 지원이 안 되며 대학에 일률적으로 지침을 보낼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학생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학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먼저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실질적인 자구노력을 하고 재정이 어려워져 교육여건이 낫 아질 우려가 있다면 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라인수업과 학교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기자재 등 재정지원에 대해 국회 예산당국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간접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2718억원을 증액했으며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예산당국의 반대로 2718억 원이 모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등록금 10%, 인당 최대 40만원을 반환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2학기에도 코로나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면서 “기술에 또 생길 지 모르는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기준 등도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어렵고 힘들 때 일수록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신뢰해야 한다”고 동참을 요청했다.

유동상 기자 tantan66@naver.com

## 울산 기숙형 고교서 16명 발열·설사 증세…식중독 의심

울산 울주군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A 고교 1학년 11명, 3학년 5명 등 16명이 지난달 29일 저녁부터 발열, 설사, 두통 증상 호소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 신속검사 결과 일부 주요 증상으로 38~39도의 열을 동반하는 식중독 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6명 중 8명은 병원 입원, 나머지 8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부산식약청, 울산시청, 울주군보건소 등 역학조사팀을 꾸려 급식소 조리용구, 3일치 급식보존식, 음용수 등 검체와 조리종사자, 입원학생 인체검체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 결과는 최소 2주 정도 소요된다.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 중 4명은 설사, 복통과 함께 발열이나 타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



두 음성으로 나왔다. 나머지 학생 12명도 코로나19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A 고교에서는 2일 조식으로 대체식을 제공하고 단축수업 후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 등교 전 학교 내 모든 시설 긴급 방역 완료했고, 기숙사도 이날 문을 닫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생관리 수칙 준수 등 식중독 예방 가정안내문 발송하는 등 관내 모든 학교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시라 기자 ditifk115@naver.com

**HYUNDAI**  
MOTOR GROUP

# "우리, 조금 더 힘내볼까?"

밖에 나가 마음껏 놀지 못하고  
친구들도 자주 못 보지만  
그래도 친구들을 위해 꾹 참고 있는  
너희들을 보면 정말 대견하단다!  
오늘은 집에서 파도 놀이를 했지만  
나중에 진짜 바다 보러 가자  
고맙다 얘들아!



## 장맛비에 본래 모습 찾은 설악산 폭포 장관



세찬 물줄기가 2일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토왕성폭포에서 흘러내리고 있다. (사진=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최근 내린 장맛비로 설악산국립공원의 대승폭포와 토왕성폭포가 본래 모습을 되찾아 장관을 이루고 있다.

3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일대에 내린 비의 양은 300mm에 이를 정도로 많이 내렸다.

설악산국립공원 인제군 서북능선 대

승령 대승폭포와 속초시 노적봉과 칠성봉 사이의 토왕성폭포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의 웅장한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대승폭포와 토왕성폭포는 밸원지와 폭포 상단 사이에 샘 또는 웅덩이가 발달되지 않아 수량이 부족해 평소에 폭포다운 모습을 보기 어렵다.

평상시 물이 흐르긴 하지만 수량이 적고 관찰지점과 거리가 멀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도총이 발달하지 않은 급경사 암반 지대라는 특성 탓에 물을 머금기 어려워 활활 활 쏟아지는 폭포수의 장관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폭포수의 장관은 2~3일 정도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악산국립공원 탐방로는 호우특보 해제와 상관없이 고지대 탐방로를 중심으로 나흘째 부분통제가 이뤄지고 있어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행 전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시라 기자 ditifk115@naver.com

## 울산시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재개 등

울산시 중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던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중구는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일제히 운영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거지 동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불법광고물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구는 오는 7일을 시작으로 매주 첫째, 셋째 주 화요일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를 실시한다. 보상금은 불법광고물 1장 당 현수막 500원(죽자형 300원), 벽보와 전단은 크기별로 10원, 30원, 50원으로 차등해서, 명함은 3원을 각각 지급한다. 단 1회 최대 2만5000원까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며, 만20세 이상 중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나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 우리버스(주), 코로나19 극복 이웃돕기 후원품 전달

울산 중구 지역 내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우리버스(주)가 2일 코로나19로 힘든 중구민들을 돋기 위해 후원품 백미 10kg 60포와 라면 60박스를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한 백미와 라면은 우리 버스(주)에서 지난 6월 한 달간 노동조합사무실에 사랑의 모금함을 비치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십시일반 모금한 365만원으로 구입한 것이다.

특히 우리버스(주)는 이 후원금을 울산페이로 충전한 뒤 중구 태화종합시장에서 직접 백미와 라면으로 구입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해 의미를 더 했다. 중구는 이번에 전달받은 백미와 라면을 지역 내 저소득층 60가구에 각각 1포와 1박스씩 전달할 예정이다.



## 인제군, 연말까지 농업기계 무상 임대

강원 인제군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농가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지원에 나선다.

인제군은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농업기계 전

기종 123종 512대에 대한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따르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어려운 ‘농가경영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수리운 영비 3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농업인들이 임대 농업기계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1600여만원을 투입해 농

업기계 안전용품인 소화기 400대와 등

회장치 6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농작업에 기계화

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

가들의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코로나19 생활방역 표준 제시…파라솔 간 거리 2m 이상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피서지로 만드는 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안전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피서지 조성으로 생활방역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파라솔 운영구간을 14곳에서 12곳으로 축소해 더 넓은 바다조망을 선사한다. 파라솔 간 거리는 2m 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파라솔 간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 피서객 신체접촉을 최소화한다. 파라솔에 개별번호를 부여하는 ‘파라솔 현장배정제’를 도입, 피서객이 파라솔을 사용한 날짜와 카드 승인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보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인접한 피서객을 확인,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 샤워·탈의장, 화장실 등을 하루 세 번 30분 간 입장을 통제하는 ‘브레이크타임’을 운영, 방역·청소를 실시하고, 샤워·탈의장 내 칸막이를 설치해 최대 수용인원의 절반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물놀이객 안전을 위해 부산소방재난

본부 수상구조대가와 민간수상구조대 60여 명을 감시탑에 배치해 구조공백을 최소화한다. 매년 개최한 해수욕장 개장행사, 바다축제는 피서객 밀집현상을 막기 위해 모두 취소하고, 그 외 문화축제도 연기하거나 취소와 더불어 야간장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피서용품 대여는 ‘해운대구 비치시스템’을 도입해 피서용품 대여구간마다 판매소를 둔다. 과거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대여소에서 직접 현금을 받는 부정수금을 차단하고, 카드와 온라인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7500원), 카드(8000원), 현금(1만원) 순으로 요금을 차등 책정해 매출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던 샤워·탈의장과 간이샤워기는 모두 구 직영으로 전환했다.

한편 송정해수욕장도 노후한 감시탑을 전면 교체해 쉽게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감시탑마다 색깔을 다르게 제작해 시인성은 물론 여름철 색다른 볼거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배영달 기자 bdd600@naver.com

## 사천시, 삼천포 남일대 전국청년 트롯가요제 개최



으며 7월 17일까지 참가자 접수를 받고 18일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개오디션을 거쳐 본선 참가 12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선은 8월 2일 삼천포 남일대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되며 우승자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사천시 관계자는 “올해 2회째를 맞는 삼천포 남일대 전국청년 트롯가요제가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진 한여름 밤의 콘서트로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부대행사를 결들일 예정이다”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요제는 만 7세부터 만 29세 이하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

이신호 기자 aaa2779@naver.com

# 주말에 뛰해?

## 구미 둘러볼까!

NAVER 구미시 문화관광

한국형  
터널  
카able  
car

한국  
정원  
한국  
정원

구미시 www.gumi.go.kr

## 세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인하 지원

4개 자금 0.54%p 인하…신규투자 촉진·경영난 완화 기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는 ▲창업자금 2.98%→2.44% ▲경쟁력강화자금 2.98%→2.44% ▲혁신형자금 2.48%→1.94% ▲기업회생자금 2.00%→1.46%로 지원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금리부담 경감으로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고, 기존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실행 중인 235개의 기업도 금리인하 적용으로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자금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하려는 기업은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에 문의하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차천영 기자 lovesg427@hanmail.net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 100억원 추가지원,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이어 7월부터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자금 등 4개 자금의 금리를 각각 0.54%포인트

##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7월분 150억원 12시간 만에 '완판'



세종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여민전 7월분 150억원이 12시간 만에 판매가 완료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민의 발행규모 확대 요청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7월분으로 지난 6월보다 90억원 증액된 150억원을 발행했다.

7월분 여민전 충전자 수는 총 4만 1668명으로, 여민전 카드 발급자 6만 4837명의 64.3%가 여민전을 구매했다. 1인당 평균 구매액은 35만9000원으로 파악됐다.

시는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 여민전 확대 발행을 검토 중으로, 추경이 통과되고 행안부에서 국비 지원규모가 결정되면 하반기 월별 발행규모 및 환급률을 시민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캐시백 혜택은 없지만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포상금, 시상금, 각종 행사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NH농협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2일부터 출시한다.

여민전 기프트카드는 5만원권과 10만원권이 발행되며, NH농협 세종시청 지점과 세종조치원금융센터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 여민전 기프트카드 구

매 시 구매대금 결제 방식은 현금(또는 계좌이체)과 NH농협카드(체워, 비씨)로 결제 가능하다.

한편 여민전은 지난 3월 3일 출시해 6월까지 300억원이 판매됐으며, 주된 사용처는 음식점·점, 종합소매점(슈퍼마켓, 편의점 등), 보건 의료(병원 등)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이시라 기자 ditifk115@naver.com

## 도로공사, 화물차 안전운전 슬로건 선포

한국도로공사는 3일 화물차 안전운전 슬로건 선포식을 했다.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안전운전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다.

화물차 안전운전을 통해 모두의 안전을 지키자는 의미의 슬로건은 '화물차 안전운전,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힘입니다'이다. 도로공사는 도로전광판(VMS)과 현수막·배너 등을 활용해 슬로건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

물차 관련 사망자는 523명으로 전체 사망자 1079명의 48.5%를 차지했으며,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공사는 이날 슬로건 선포식과 함께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현국 교통안전팀장은 "지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6명(전년 대비 22.5% 감소)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으나, 화물차 사고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 부산시, 어린이집 1776곳 급식·위생 관리 재점검 한다

부산시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자 어린이집 1776곳 전부 급식·위생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어름철 어린이집 내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기존 하절기 급식 위생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예방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위생관리 실태를 전면 재점검할 계획이다.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만큼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체계를 강화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별로 식중독 예방관리 책임자 1인을 지정해 시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키로 했다.

또 시와 구·군, 관내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상시 비상 연

락을 통한 신속한 보고체계도 마련 한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어린이집 300곳을 대상으로 하절기 급식 위생 안전점검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식중독사고가 잇따르자 7월 한 달간 관내 어린이집 1776곳을 대상으로 급식·위생 관리실태 점검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현장점검을 진행

키로 한 것이다.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만큼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체계를 강화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별로 식중독 예방관리 책임자 1인을 지정해 시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전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급식

위생 예방관리 교육도 시행한다.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조리실 내 부착할 수 있는 예방수칙 스티커를 제작·배포하는 등 예방수칙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식중독 예방수칙 등 매뉴얼을 배포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장기화와 식중독 발생 등이 맞물리며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하며 위생관리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배영달 기자 bdd600@naver.com



## 남해 작은미술관, 안운주·김태연 작가 '몽유도원' 전 개최

경남 남해군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이 오는 7일부터 안운주, 김태연 작가의 '몽유도원' 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여류작가의 새로운 시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 안운주 작가는 흐드러지게 편 앞산 진달래, 소나무 등 자연으로부터 시작된 유년의 추억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회풍으로 표현한다. 또 김태연 작가는 작고 소중한 고양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감성을 고양이의 시선을 따라 독특하게 그려낸다. 특히 안운주 작가는 심도 있고 각적인 채색, 절도 있는 봇ter치를 통해 자신의 미학을 표현하는 반면, 김 작가는 간결함과 조화로운 색조, 따뜻한 질감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서로 다른 소재와 화풍으로 두 작가의 그림은 상반되는 듯하지만, 수채화처럼 변이는 그리기 기법에서 깊은 구석도 느껴진다.

이번 전시는 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이며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 관람은 필수다.

## 상주 베리 홍보·판매행사 성황리에 마쳐

### 베리류 2T 판매, 2400만원 소득 올려

경북 상주시가 주최한 경북 최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와 상주시 하나로마트 본점 연계 판매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

3일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판매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상주베리축제를 대신해 열렸다.

사이소 홈페이지를 통한 베리류 구매는 지난달 말까지 운영됐다. 하나로마트와 연계한 홍보·판매행사는 두 차례에 걸쳐 열렸다. 판매 행사에는 베리류(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산딸기) 생과와 다양한 가공품을 선보였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육성해 올해 첫 수확한 산딸기는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행사를 통해 산딸기를 비롯한 베리류 2t이 판매돼 24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최나두 상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판매행사를 토대로 농업인 소득증대 향상과 소비자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배영달 기자 bdd600@naver.com

##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청송군의회

희망찬 미래를 위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송군의회

산소카페  
청송군



# 광주 코로나19 확산 최대 위기…주말·휴일이 고비

일주일 확진자 51명 증가, 누적 84명 기록  
주말·휴일 외출 자제, 방역수칙 준수 절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3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에서 코로나19 발생 현황 보고를 받기 위해 비즈니스룸으로 들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광주가 일주일 만에 확진자 51명이 발생하며 감염병 창궐 최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주 주말과 휴일이 확산세를 차단 할 수 있는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광주지역의 방역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만큼 시민들의 불필요한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준수가 절실했던 상황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간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1명 증가했다. 누적 환자는 84명이다.

지난 2월3일 광주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개월여 동안 33명이었던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 확진자들이 집단감염 양상을 보이는 데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고령자들이 65% 이상 차지하고 있고 요양원, 교회, 사찰, 오피스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되고 있어 추가 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자체적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일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외출과 나들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 주말과 휴일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합 또는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신천지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광주지역 종교계에 집단예배 자제를 호소했다.

최근에도 금양오피스텔을 매개로 광주사랑교회에서 확진자가 10명이 발생할 정도로 밀접접촉이 이뤄지는 소규모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주점이나,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고위험시설도 2주 간 집합이 금지되는 만큼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고위험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방역 취약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2021년 3월 전남 담양군 봉산면에 개교 예정인 전남지역 첫 공립 대안학교 교명이 ‘송강고등학교’로 확정됐다고 전남도교육청이 3일 밝혔다.

## 전남 첫 공립 대안학교 교명 ‘송강고’ 확정

116편 공모…담양 봉산면에 2021년 3월 개교

도 하다.

도교육청은 송강고로 명칭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8월 2021학년도 신입생 전형요강을 공고한 뒤 신입생 모집 흥보와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교명 선정 과정을 통해 보여준 대안 학교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확인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교명이 확정된 만큼 철저한 개교 준비를 통해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1호 공립 대안학교인 송강고는 담양군 봉산면 양지리 옛 봉산초 양지분교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40억 원, 도교육청 28억 원, 담양군청 10억 원 등 모두 78억 원을 재원으로 설립되며, 2021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이영신 기자 jeesin7789@hanmail.net

계룡시, 최대 규모 공공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6일부터 3일간 접수, 31개 분야 231명 모집

충남 계룡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연대 최대 규모로 ‘2020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실직,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시행한다.

모집인원은 231명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주민이다.

참여희망자는 6일부터 8일까지 본인

이선희 기자 tosji@naver.com

## 제주 지난해 감귤조수입 8506억원

최근 3년 중 최저…전년 대비 만감류·하우스온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생산된 감귤은 63만1310t, 조수입은 850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18년산 생산량 60만7638t 보다 3.9%가 증가한 것이나, 조수입은 9402억원보다 9.5%가 감소했다. 특히 조수입은 2017년 9458억원, 2016년 9114억원 등 최근 3년간 조수입에 비

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지감귤은 4302억원으로, 2018년산 5030억원에 비해 19.8%, 월동온주는 771억원으로, 2018년산 893억원에 비해 13.6%가 각각 감소했다.

이는 노지감귤의 경우 태풍 등 잦은 비로 인한 품질저하로 소비부진과 경기침체 등 소비둔화로, 월동온주는 부피과 비율증가 등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만감류 조수입은 2796억원으로 2018년산 2699억원에 비해 4.8%, 하우스온주는 907억원으로 2018년산 810억원에 비해 11.9%가 각각 증가했다.

중순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장편 5000만원, 단편 2편 각 500만원의 제작지원금을 받게 된다. 제작지원금 외에도 4000만원을 후반 작업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영화계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제작지원금을 늘렸다고 전했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새	로	운	일	상
생활	속	거	리	두	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코로나,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비누로 30초 간 손씻기·사회적 거리두기



## “제주공항 직원을 대구로?”…공항공사 직원 ‘반발’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 근로계약서 논란  
근무 지역에 10개 공항 모두 명시…“사실상 해고 통보”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공항지회가 2일 제주공항 3번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공항서비스를 향해 제주공항 지속근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설립한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 직원들의 근무 지역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역이 ‘남부공항서비스(주) 전 사업장’이라는 문구가 삽입되면서 일부 직원들이 이전에 약속한 ‘채용 공항 지속 근무’ 조건과 다르며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공항지회는 2일 제주공항 3번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공항서비스가 전환 당시 약속과 달리 ‘전 공항 순환 근무’가 가능하다는 독소조항을 넣은 근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자회사 3개를 설립해 공항 환경미화, 주차, 시설관리, 탑승교 직원 등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남부공항서비스는 올해 1월1일 설립돼 전국 10개 공항을 관리하고 있다.

노조는 “수년간, 많게는 10년 넘게 삶터와 일터가 모두 제주였던 노동자에게 대구나 김해 등으로 전직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남부공항서비스가 이와 관련해 노조에 보낸 공문을 보면 “당사는 10개 공항이 하나의 회사로 합쳐진 만큼 자기 계발을 통해 여러 업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근무가 가능한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전 사업장’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고 나와 있다.

노조는 “제주공항에서 일하던 사람을 대구공항에 보내면 자기 계발이 되느냐”며 “미화일 하던 노동자더러 갑자기 탑승교 업무를 맡으라고 하면 자기 계발이 아닌 스트레스다”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남부공항서비스 외 다른 2개 자회사는 모두 자회사 전환 이전에 근무했던 공항으로만 근무 지역을 명시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다른 자회사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정호복 기자 jhoo48@naver.com

국악과 춤, 무료로 가르칩니다…  
완주풍류학교 여름강습

2020년 완주풍류학교 여름강습  
**수강생 모집**

우석대학교 융복합문화콘텐츠연구소가 위탁 운영하는 완주풍류학교가 우리 악기와 춤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2020 여름 강습’을 7월28일~8월29일 한다.

가야금, 대금, 피리, 해금, 아쟁, 타악, 판소리, 무용 등 8개 강좌가 개설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학생 및 직장인들을 위해 오전, 오후, 늦은 오후 다양한 시간대에 강습한다. 자세한 시간표는 완주풍류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14~17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로 접수하거나 완주풍류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북 남원시 갈치마을이 제7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목공체험.

### ‘미소처럼 맑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선도

남원 갈치마을, 道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최우수상’ 영예

전북 남원시 갈치마을이 제7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최근 개최된 제7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전라북도대회 경관환경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시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지난 19일 현장평가를 통해 도내 8개 마을이 참여한 경관환경, 분야별에서 경쟁한 결과 갈치마을은 생태마을을 주제로 한 경관환경분야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마을만들기분야에서는 인월면 중심지개발사업이 3등을 수상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인 농촌활력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이기

도 하지만 갈치마을 주민들이 혼연 일체가 돼 경관환경분야에서는 남원시 최초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번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의 자율·창의력·협동심을 고취하고 마을의 소득·문화·경관·환경 등 개선을 유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뒀다.

그간 갈치마을은 문화복지, 농촌 경관 등 여러 가지 공동체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017년부터 생태마을 사업단을 구성 마을자체사업으로 마을소하천가로수 식재, 친환경 도량 정비, 당산나무 환경정비, 노후담장 도색, 쓰레기 분리수거, 마을제시판 제작, 위험난간 보수 등 많은 일들을 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 외계인도 친구가 있을까?

끊임없는 아이의 호기심에 불을 지펴 주세요.

국내 최초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을 특화주제로 한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와  
기상예보관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립밀양기상과학관이  
2020년 상반기에 개관합니다.  
밀양에서 꿈과 동심을 찾아가세요!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국내 최초 외계인 특화 주제 천문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국내 최초 기상예보관 직업체험 전시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86 / 2020년 상반기 개관 예정

MILYANG CITY

# 건강한 Life is Good

소소한 일상의 행복과  
가족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머무는 공간,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음식을 담는 그릇,  
매일 입는 옷까지

건강한 흰 Life를 위해  
LG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LG**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